

93.2.15

'여련' 세대교체...40대 공동대표 3인 선출

여성운동 '생활 속으로' 선언

실질적 일꾼 전면에...성폭력 추방·주부운동 활성화 추진



한 명 숙



이 명 순



이 미 경

재야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련)이 쏠어진다.

그동안 단일회장제로 운영돼온 여련은 지난 2일 정기총회를 열고 40대의 한명숙(49·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이영순(45·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미경(42·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씨 등 3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점점 방대해지고 전문화되는 여성운동을 한사람의 대표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공동대표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총회에서 강력히 제기돼 단일회장제에서 공동대표제로 바뀌 첫 공동대표를 뽑은 것이다.

여련의 제4대 책임자가 된 세사람의 공동대표는 20년 가까이 여성운동 현장에서 뛰어온 실무자 출신이어서 올 여련의 활동과 여성운동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주목된다.

한명숙 상임공동대표는 3일 오전 여련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이우정, 이효재,

조화순씨 등 여성운동 1세대인 60대의 선배 여성운동가들이 이끌어온 바탕 위에서 40대의 젊고 활기찬 열기로 여련을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특히 "여성운동과 대중이 서로 유리돼있던 데서 벗어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여성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순·이미경 공동대표도 "보통여성들이 여성운동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 공동대표는 올해 여련의 주요사업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추방운동 △방위비 삭감운동과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마련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운동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여성정책 제시를 위한 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시간제 여성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여성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활동의 강화 △주부운동의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운동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발판마련과 함께 앞으로 있을 지자체선거와 총선 등에 출마할 여성인재 발굴도 겸하는 것으로, 1차로 서울 서대문·은평지역, 대전, 인천, 마산 등지에서 시범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간제 여성노동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오는 5월초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와 여성차별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성차별구조 해소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양성평등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또 학자, 정치인, 여성문제전문가, 여성노동계 인사, 주부 등 15~20명으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대안이 있는 여성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기반을 넓혀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세 공동대표는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